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12

방법으로서의 연애-여성혐오와 근대 인식 －염상섭 초기작[1]을 중심으로－*

이 지 혜**

요 약

본 논문은 염상섭의 근대 초기 연애소설을 통해 연애의 시대 속에서 '시대의 연애'를 보고 있으며, 다른 근대 인식으로 나아가는 작가만의 시선을 확인한다. 염상섭이 그 시기 다른 작가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1920년대 정형화되었던 '신성한 연애'가 현실에서 실천될 경우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아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성한 연애의 모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것의 반대항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필수적인 경유지였던 '오염된 연애-여성혐오(misogyny)'의 지점임을 '아는 것'에서 연유한다. 작가는 그 누구보다 시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기에, 신성한 연애의 주체와는 다른 근대적 주체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암야〉(2장)는 신성한 연애가 현실에서는 '소외의 연애' 밖에는 될 수 없음을 목도한다. X(남성)는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되고, N(여성)은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연민-멸시'를 오고가는, 즉 여성혐오를 통해 배제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X는 식민지 시대가 난세임을 자각하였고 근대성에 대한 각성까지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작가는 〈제야〉(3장)에서 신성한 연애의 반대편이라 여겨지는,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1) 염상섭, 〈암야〉, 〈제야〉, ≪두 파산≫, 문학과 지성사, 2012. ; 염상섭, 〈해바라기〉, ≪만세전≫, 문학과 지성사, 2005. 이하 본문에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

신여성이 행하는 오염된 연애를 끝 간 데까지 밀어붙여보는 '실험의 연애'를 감행한다. 이 실험은 먼저 여성혐오를 도구화하여 방패로 삼은 후 이루어진다. 전면화 된 오염된 연애는 그간 가려져 있는 '여성 주체'를 가시화하고, 연애는 일방적 감정이 아닌 '관계'였음을 드러낸다. 더하여 식민지 근대에서 강한 남성 주체를 가능하게 했던 '우-열'의 관계까지 무화시킴으로써 근대성의 환상을 걷고, 그것을 환멸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는 다른 근대성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바라기〉(4장)는 연애의 환상이 사라진 현실에 '교환의 연애'가 남았음을 보여준다. 영희와 순택이 보여주는 교환의 연애는 그간 부정되었던 물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지만 도덕적 가치판단이나 이상적 기준을 강요받지 않기에 자유롭다. 이러한 연애에는 근대성의 환상-여성혐오를 통해 구성되었던 강한 남성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식민지 남성/여성 모두 허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약한 주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식민지 지식인의 개성을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들은 시대의 불구성을 알고 자신의 약함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알기에 도리어 현실에서 쉽사리 눈 돌리지 않으며 더욱 응시하는 자이자, 강자의 논리를 따라가는 대신 다른 길을 찾아보려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인식은 작가 염상섭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그는 관찰자이자 중계자로서 모든 것을 냉소하는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정신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개성의 주체가 된다. 그는 타자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을 통해 자아의 자리를 확보한다. 여기서 작가 염상섭만이 확보한 개성의 의미와 이후 그의 서사 세계를 균형감 있게 지탱해준 토대를 발견하게 된다.

주제어: 염상섭, 여성혐오, 연애, 근대성, 환멸, 개성, <제야>, <암야>, <해바라기>

목차

1. 서론 : 연애 서사와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
2. 소외의 연애와 근대성의 각성
3. 실험의 연애와 근대성의 환멸
4. 교환의 연애와 근대성의 재편
5. 결론 : 현실의 '연애-여성'과 냉소적 근대 인식

1. 서론 : 연애 서사와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

연애-사랑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본능적인 감정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현 시대의 연애개념은 근대사회가 시작되면서 발명된 것이며, 특정한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일종의 근대사회적 코드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이제 막 연애 개념이 유입되었던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연애 양상 속에서도 확인된다. 서구에서 이식된 연애란 개념은 가족, 성, 재생산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문화 전반의 재편을 요구하였다. 즉 20년대의 연애는 근대적 삶의 새로운 감각이자 다양한 문제가 혼재된 "모순의 중첩지"[2]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문학의 근대화'를 요청받고 있던 한국문학이 연애를 주요 소재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연애는 개인의 감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대적 주체를 자연스럽게 형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코드까지 담아낼 수 있는 시대의 키워드였기 때문이다. 당대 소설가들은 새로운 이념을 만드는 것에 가담하면서도 그 균열을 그대로 노출하는 이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3] 그리하여

2)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소명출판, 2008. 18면.
3) 위의 책, 18면.

1920년대 문학 안의 연애는 “근대문학의 발생과 나란히 나아가는 역사적 현상”이자 “근대성의 숨겨진 영역”[4] 그 자체가 되었다.

이때 특히 주목할 것은 소설에서 연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근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직결되었다는 점이다.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상황은 남성주체에게 필연적으로 ‘약함’의 자리를 내정한다. 이에 남성주체는 식민주의로 훼손된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성혐오’[5]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적 여성혐오의 특수성은 “식민지 남성주체의 자기혐오를 투사한 현상”에서 비롯되는데, 내 안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보다는 내 안의 타자에게 돌리는 방식이었다.[6] 즉 여성을 ‘우-열(강-약)’의 관계에서 ‘열’에 위치시킴으로써 ‘제국-식민’에서는 ‘열’에 위치했던 남성성을 ‘우’의 자리로 회복하여 존재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7]

연애소설은 이를 가시화하여 보여주기 좋은 최적의 장소였다. 우선 연애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각과 인식을 통해 자아가 주체성을

4)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18, 2001. 302면.

5) 여성혐오(misogyny)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객체화, 타자화하여 하나의 ‘기호’처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혐오는 현실의 여성이 아닌 “명백하게 실체 없는 환상과 이미지에 근거”한다.(손희정,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 『여성문학연구』 36, 2015. 128면.) 이러한 환상은 각 시대의 ‘남성됨’에 어울리는 남성 주체화를 위해 그 반대편의 것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서의 모순은 남성의 주체화를 위해 여성이란 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우에노 지즈코,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7. 14면, 18면, 306면.)

6) 각 사회마다 차별적 요소들(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국가 등)이 중층적으로 겹쳐 각기 다른 도미넌트를 형성하는데, 한국은 근대 이후 유독 여성혐오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이선옥, 「과학주의 시대-여성혐오라는 정동」, 『여성문학연구』 36, 2015. 103~4면.) 이는 한국에서 인종은 식별 가능한 지점이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식민지배 아래에서 계급과 국가도 유효한 기준이 아니었던 것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젠더는 ‘성별이원제 젠더 질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식별까지 가능하기에 가장 손쉽고도 강력한 방법이다. (우에노 지즈코, 앞의 책, 14면. ; 류진희, 「‘무기 없는 민족’의 여성이라는 거울」, 『문학과학』, 83, 2015. 50면.)

7) 이선옥, 앞의 글, 102면.

자각하였음을 인위적으로 드러내주는 소재 그 자체였다.[8] 더불어 연애는 상대-여성을 통한 차별화의 기획까지 가능했기에, 식민지 남성 지식인을 근대적 주체에 도달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9]이 되어주었다. 그렇기에 연애는 1920년대 문학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고, 점차 '신성한 연애'[10]로 형상화되었다. 신성한 연애는 1920년대 근대의 이상-주체적인 근대적 자아, 새로운 세계의 인식 등-을 담고 있는 새로운 진리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연애의 반복된 문학적 형상화는 연애를 이상화시키며 여러 폐쇄적 조건들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이를 정형화된 형식으로 고정시켜버린다. 즉 신성한 연애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love is blind"와 같은 철언[11]으로 상징되는 무엇,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위해 맹목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 열정 그 자체로 정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애의 표상은 현실 안에서 실천될 때 현격한 괴리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근대 주체의 형성 기획은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남성지식인의 대응은 신성한 연애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외적 조건들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또 하나의 정형화된 연애를 만드는 것, 즉 (신성한 연애의 반대편에) '오염된 연애'를 상정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이때 신성한 연애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손쉽게 등장한 것은 연애의 상대-신여성이었다. 봉건사

8)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 27, 2005. 60면.
9) 오윤호, 「염상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모방적 이성애'」, 『한국소설 근대성의 시학』, 예림기획, 2003. 292면.
10) 본고에서는 연애에 최고 최상의 가치를 부여했던 그 시기의 연애를 '신성한 연애'로 지칭하려 한다. 연애는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 낯선 사랑의 방식이자 개념이었기에 모호하고 불투명한 것이었다. 생경하고 이국적인 사랑 풍속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함축하는 추상적 기표였기에, 그것은 알기도 전에 욕망해야 하는 것이자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숭고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김지영, 앞의 책, 41면, 51면 참조.)
11)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4. 93면, 99면.

회에 대한 비난이 민족이란 민감한 부분과 연결되었던 것과 달리, 신여성은 감정이 가진 위험성, 관계 실패의 두려움 등을 떠넘겨도 '남성성'과 '신성한 연애의 이념&형식'은 전혀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주체는 연애소설에 나타난 신성한 연애를 통해 근대적 주체의 징표를 획득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패는 오염된 연애에 넘김으로써 이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신성한 연애와 오염된 연애가 극과 극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기 연애담론을 유지하기 위한 '동전의 양면'이었으며 그 안의 여성혐오는 남성 주체의 형성을 위한 '필수적 경유지'였음을 도리어 확인시켜준다.

본고는 1920년대가 연애의 시대였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 염상섭의 연애소설을 살펴보려고 한다. 염상섭은 등단 이후 계속해서 연애소설을 써왔으며, 선행연구 역시 염상섭과 연애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선 연구 성과를 참고[12]하되, 염상섭의

12) 근대성과 연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김지영, 임정연, 권보드래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작가의 연애 양상을 연구한 세부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염상섭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염상섭과 연애(특히 여성의식)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미지,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경수, 「염상섭의 초기 소설과 개성론과 연애론」, 『어문학』 77, 2005. ; 김주현, 「자유연애의 이상과 파국」, 『우리어학연구』 26, 2009. ; 공종구, 「염상섭 초기소설의 여성의식」, 『한국언어문학』 74, 2010. ; 이태숙, 「염상섭의 20년대 연애소설과 유학의 경험」, 『한중인문학회』 29, 2010. ; 지용신, 「염상섭 초기소설 속 연애 담론 고찰」, 『한남어문학』 37. 2013. ; 윤영옥, 「염상섭 소설에서의 자유연애와 자본으로서의 젠더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58, 2014. 등)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개별 텍스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제가 '여성의식'과 관련될 경우 작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작가의 여성의식에 대한 지적/비판으로 그치기보단, 작가의 비평, 시대 상황, 각 텍스트의 연관성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좀 더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 즉 이 시기의 식민지 지식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 및 근대 인식이 여

연애 소설이 갖는 차별 지점이 1920년대가 지향하는 신성한 연애가 현실에서 실천될 경우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아는 것'이라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연애의 균열·모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오염된 연애-여성혐오'라는 것 역시 '아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염상섭은 알게 된 것을 적당히 봉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는 작가였기에 시대의 문법을 무작정 덮어두고 따라갈 수 없었고, 때문에 염상섭을 그 시기 다른 남성작가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위치를 점유하게 한 것이다. 신성한 연애가 사실은 환상이며 현실에서는 지켜질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현할 수 없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애의 환상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면 그 짝패인 오염된 연애의 의미 역시 뒤틀리고, 연애의 표상이 가진 균열의 상처가 더 벌어지게 된다. 즉 '연애-여성혐오-근대인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시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인정하게 하고, 신성한 연애의 주체와는 다른 정체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염상섭의 초기작인 〈암야〉(1922), 〈제야〉(1922), 〈해바라기〉(1923)로 한정한다. 염상섭이 냉정하고 이지적이며 냉소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것과는 달리, 그의 초기작은 주관성이 짙은 것을 넘어 "신경증과 우울증"까지 걸려 불안함에 고통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받을 정도[13]로 이질적이다. 하지만 이를 새로운 근대인식을 통한 정체성 확립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더 이상 환상으로만 남을 수 없는 '연애-여성혐오'를 도구화하여 자아각성과 환멸 그리고 새로운 개성의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14]을 확

성혐오와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되, 그것을 인식하는 작가의 태도가 각 텍스트의 결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남성작가의 소설과 어떠한 차이를 낳게 하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13)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4. 392면.

인하는 것은 그의 소설과 비평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소외의 연애와 근대성의 각성(〈암야〉)

1920년대 초의 연애는 앞서 밝힌 바 같이 '감정과 욕망의 해방', 남녀의 '새로운 관계'를 상정했지만 현실에선 "승화와 포획의 장치"로 작동하였고, 이에 추상적으로 고정된 윤리를 (재)생산해내는 "억압과 배제의 기호"로 정형화 되었다.[15] 이러한 연애에서 상대 여성은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존재 정도로만 필요할 뿐이며, 이때 고양된 감정은 철저히 남성의 '내면' 안에만 속하는 것이 된다.[16] 따라서 소설 안에 남는 것은 남성 주체의 과잉된 감정뿐이었으며, 이 감정 역시 독백처럼 제한된 감정이었기에 사랑은 당위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었다. 즉 신성한 연애가 현실 공간 안에서 재현될 때는 자신의 감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남성과 감정의 대상으로 소외되는 여성만이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의 연애는 연애의 주체들 모두 배제되는 '소외의 연애'에 다름 아니게 된다.

이러한 배경은 〈암야〉가 연애소설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

14) 그의 근대 인식을 '각성-환멸-재편(개성)'으로 판단한 것은 주요한 비평문이라 평가받는 「개성과 예술」(1922)을 참고하였다. 그는 "근대문명의 정신적 수확물" 중 가장 큰 의미로 "자아의 각성"(189)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성은 "낭만적 사상의 베일"에서 나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190)되는데, 이후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심리상태가 "환멸의 비애"(191)이다. 이 과정 이후에야 "개인의 자아가 발견"되는데, 염상섭은 이를 "개성의 발견", "새로운 가치부여"라고 말(192)한다. 이를 볼 때 염상섭은 각 과정을 정확한 단계로 나누진 않았지만, 이상-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가에 따라 나름의 흐름과 결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김지영, 앞의 책, 90면, 161면.

16) 김지영, 앞의 책, 49면.

약혼자 N은 존재만 제시되고 X와 만나는 일이 소설의 끝까지 없음에도 〈암야〉가 연애소설인 이유는 이들의 기묘한 연애가 그 시절 현실에서 펼쳐진 소외의 연애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암야〉의 주인공 X는 연애와 관련된 욕망이 사라진 자이다. 그는 "이유 없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음에도, "의식적이 아니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75)고 고백하며 슬퍼한다. 이때 X의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신성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축복받은 조건에 있는 자[17]이며 그렇기에 사랑을 '해야만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성한 연애의 자장 아래 자신이 요구받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사랑의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것에 큰 고통과 번민을 겪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져버리지 않는다. 시대적 당위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처절하게 괴로워하는 X의 모습은 '이유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진리가 도리어 솔직한 감정을 억압하고, 주체를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음을 내보여 준다. 또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느낀 '결핍'의 감정은 이론적으로 구상했던 연애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순간[18]이기도 하다. 즉 작가는 현실의 연애는 "의식이나 조건이 없"이 할 수 없는(75) 것임을 이야기함으로써 신성한 연애의 허구적 틈새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X가 자신의 글에서 "탐구치 않음도 역시 유의의"할 수 있고 "탐구함이 또한 무의의"(71)할 수 있다고 선언했듯, 신성한 연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감정의 해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진리의 전도를 일으킨다.[19]

---

17) X는 당대의 지식인이고 약혼자 N은 동생의 학교 동무(77), 즉 학식 있는 신여성이다. 이는 그와 그녀가 당대의 신성한 연애를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인물들임을 보여 준다.

18) 김지영, 앞의 책, 150면 참조.

19) 염상섭은 감정을 "관습이나 사회적 통념의 당위적 요구"를 구분지어 생각한 작가이다. 그 시기 자유연애 사상이 "당대 지식인이 온힘을 다해 밀고나갔던 '하나의 이데올로기'"라 한다면, 그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나 정당성으로는 강제될 수

〈암야〉에서 신성한 연애의 모순 지점이 정면으로 드러나는 곳은 '약혼자 N-여성'에 대한 X의 인지와 감정의 변화이다. 연애는 남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X는 현실에서 약혼자 N이 연애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일생의 연밖에" 될 수 없음(75)을 자각한다. 이러한 판단은 신성한 연애에 있어 필요한 것이 남성과 동등한 여성이 아닌, 단지 남성의 유희를 위해 '연'과 같이 대상화된 여성임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명명이다. 그리고 그녀가 연과 같은 대상에 불과하다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존재할 수 없게 되며, 남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뿐이다.

X는 N이 자신에게 연밖에 안되고 자신은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그녀를 "이성 앞에서 부르르 떠는…순결한 처녀", "가엾"고 "불쌍한 여자"(75)라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반면 자신은 그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약속했기에, "사기"를 친 자, "최고 도덕으로 죄악"을 저지른 "정신적 매춘부"이자 "정열의 방사자"(75)로 비하된다. 그는 연애를 고뇌하며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고, 어느새 격한 감정으로 달아오른다. 그리곤 "급작스레 천진한 N이 불쌍"해져서 "사진을 들어 한참 들여다보다가, 키스를 하고, 다시 놓"기도 한다(75). 이러한 X의 고민과 행위는 신성한 연애의 제스처와 지극히 닮아있다. 하지만 X는 N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미리 고백했기에, X의 제스처는 도리어 사랑의 감정이 없음에도 신성한 연애처럼 보일 수 있음을 역으로 내보이는 일이 된다.

또한 뒤이어 등장하는 N에 대한 극과 극의 태도는 현실의 균열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X의 인식이 급변하는 것은 집을 떠나는 순간

없는 고유한 권리로 감정의 권리를 내세운다.(최혜실, 『한국근대문학사』,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125면.; 문광훈, 『한국 현대소설과 근대적 자아의식』, 아카넷, 2010. 337면.)

보이는 '시대에 대한 자각' 때문이다. X는 집을 벗어나 현실 생활을 이어가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마치 "무덤"(78)과도 같은 현실을 보게 된다.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은 예술을 하겠다는 A도, 기생 제자를 들인 B, 실없는 농담처럼 구혼을 부탁하는 C, 생활의 문제에만 심각미를 드러내는 D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냈던 X 자신마저도 한낱 "유희적"인 인간(81)으로 전락시킨다. 연애의 시대 안에 산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날리지 못할 것이 내정된 연날리기일 뿐이며, 연을 띄워보려 애쓰는 그들은 절뚝발이 아이와 같이 한낱 재미만을 얻을 수 있는 불구적인 주체였음을 자각한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X는 연애의 시대가 아닌 '시대의 연애'만을 발견하게 된다. X의 자각은 인간대사라 여겨지는 결혼을 향해 "피차에 코빼기도 못 본…남녀가, 일생의 운명에 간음적 최후 결단을 선고하는 것"이자 "인천 미두 이상의 더러운 도박"(78-9)이라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신성한 연애는 현실에서 "자기기만, 자기 우롱"에 지나지 않은 "사이비" 연애일 뿐이며, "인생의 아름답고 순결한 정서를 발로하는" 한 차원 높은 '이상적 연애'[20]와는 다른 것으로 구분 짓는다.

이러한 자각 끝에 가닿는 것은 약혼자 N에 대한 혐오적 태도이다. 그는 책상 위 N의 사진을 보자 "이 사람이 전 생애를, 전 운명을, 나에게 걸고 있구나!…이, 나에게! 나를 이 세상에서 하늘 같이 쳐다보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는 없다…"(84)라며 또 다시 자신의 감

20) 염상섭은 「감상과 기대」(1925)에서 진정한 연애(이상적 연애)에 대해, ① '무(無)'에 대한 동경, ② 완전을 '향한' 노력 ③ '자기발견'의 기쁨이라 말한다. 또한 「저수하에서」(1921)에서 "연애를 부정하는 나도 정사(情死)만은 긍정하려 한다.… 연애의 무의의(無意義)를 깨닫기 때문에 정사의 미를 아는 바이다"라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그가 현실에서 이상적인 연애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으며, 있다고 해도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음을 확인하게 한다.(염상섭, 「저수하에서」, 『염상섭 문장 전집』, 151면. ; 염상섭, 「감상과 기대」, 『염상섭 문장 전집』 1, 417면.)

정을 고양시킨다. 하지만 이제 N은 X의 "등에 식은땀"을 흐르게 하고, "수치와 모욕"까지 주는 사람(84)으로 전락한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N의 사진을 보는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어느 때는 자신을 비하할 정도로 연민을 느끼다가도 어느 때는 수치와 모욕을 느낄 정도의 멸시를 오고가는 X의 극단적 태도이다. N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변화하는 X의 태도는 결국 N에 대한 판단이 X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남성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타자화-성녀/창녀의 이분법-와 다르지 않다.[21] 그리고 '연민/멸시' 모두가 여성을 타자화하는 것이 된다면, 이 두 감정 역시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게 된다. 연민은 그저 혐오하는 "대상이 갖는 수동성을 최대한 강조했을 때 발생하는 복합감정"[22]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X가 보여주는 여성 혐오는 현실의 N(여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을, 즉 신성한 연애에서 여성의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임을 드러낸다.

〈얌야〉의 X는 신성한 연애의 "낭만적 사상"에 대해 의심하며 "자기 자신에까지 의혹의 안광"[23]을 보내었고, 비로소 연애의 시대에 대한 환상을 각성하여 현실의 연애가 소외의 연애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과 마주한다. 하지만 X는 근대의 각성에서 멈춘 과정 중 주체이다. 그는 자신은 "속되지 않다…속중과는 동화치 않는다"(83)고 거리를 두지만, 앞서 "예술이냐? 연애냐?"란 물음에 "두 가지를 전연히 부정할 수도 없고, 전연히 긍정할 수 없다"(75)며 소설의 끝까지 답변을 유보한다. 이는 신성한 연애나 이상적 연애 모두 현실에서는 실패함을 알면서도, 연애가 주는 "주체성의 절정"[24]을 아직은 포기

21) 우에노 지즈코, 앞의 책, 59면.
22) 이정숙, 「'개발주의서사'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 『여성문학연구』 36, 2015. 69면.
23) 염상섭, 「개성과 예술」, 앞의 책, 190면.
24) 예술/연애는 그 당시 문인들이 주체성의 절정을 경험하고자 선택한 두 가지 지

할 수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는 남성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25] 따라서 소설의 마지막에 X는 "영원"을 꿈꿨지만 "작고 약하고 추한 그림자"(85)와도 같은 자신을 확인할 뿐, 여전히 암야(闇夜)와도 같은 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게 된다.

3. 실험의 연애와 근대성의 환멸(〈제야〉)

〈제야〉는 양극의 평가[26]를 받는 소설이지만, 노골적인 '여성혐오'는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제야〉의 '여성혐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대신 그가 '오염된 연애-여성혐오'를 적극적으로 도구화하여 방패로 삼고, 연애를 실험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이는 결국 신성한 연애가 가리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어 신성한 연애의 짝패였던 오염된 연애를 무화시키고, 근대성의 환상을 직시하는 환멸의 비애와 직결된다.

이 시절 신여성은 처음에는 최고의 연애대상이었으나, 이내 집단

향점이었다. 특히 동인지 문인은 연애를 '참 예술=참 자기'와 동급으로 보았다.(김지영, 앞의 책, 101면, 112면.)

25) X가 '각성'에서 멈춘 주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①우선 그는 책을 읽고 흘리는 눈물이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84)이라 말한다. 이는 현실각성 후 찾아오는 '환멸의 비애'임에도 X는 그 의미까지 가닿지 못함을 보여준다. ②염상섭은 기호의 명명 체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현실 속에 관철하지 못하는 인물과 기호의 체계를 벗어나 자신의 의지와 의미를 획득한 인물을 구분하는데(김도경, 「염상섭 초기 단편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9, 2009. 242면.), X는 마지막까지 이니셜로 남는다. ③마지막으로 암야의 소제목-어젯밤 편지를 받고 S·K씨에게 바치나이다-과 연결되는 편지형식이다. 염상섭은 일본 작가들의 내면과 고백을 가능케 했던 제도적 장치인 '편지형식'을 받아드렸지만, 그에게 아직 고백해야 할 내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강헌국, 「개념의 서사화」, 『국어국문학』 143, 2006. 412면).

26) 김영민, 「염상섭 초기 문학의 재인식」, 『사이』 16, 2014. 155~6면, 160면.

적 취향의 대상이자 기호가 된다. 남성들은 신여성에게 매혹되면서도 동시에 모멸하였고, 신성한 연애를 실패하게 하는 오염원으로 규정한다. 이를 증명하듯 〈제야〉의 앞 장(1,2장)은 죽기 직전 신여성의 입에서 토로되는 '여성혐오-자기혐오'[27]로 이루어진다. 최정인은 편지의 시작부터 "최후의 순간"(86)이라며 고해성사 하듯 자기 혐오적 발언을 쏟아낸다.[28] 이는 자신의 잘못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인은 "지긋지긋한 최가의 피!"(102-3)를 타고났기에, 그럴 수밖에 없음도 고한다.[29] 정인이 토로한 나쁜 피와 육의 욕망은 당대 신여성을 모멸할 때 사용되었던 레토릭이었다. 특히 '피'의 메타포와 더불어 육체, 감정 등과 같이 근대 이분법의 기준에서 '열'의 축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생학' 같은 과학을 힘입어 여성이 열등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근거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잘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전에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혐오를 본인이 토해내는 것은 오히려 〈제야〉를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로만 볼 수 없도록 만든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앞'질러 밝힘으로써 반대로 그 '뒤'에 오는 모든 치부와 비밀은 자유롭게 밝혀도 되는 '면죄부'를 획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남편의 죄를 일일이 지적[30]하고,

---

27) 여성혐오는 남성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이 '여성 멸시'를 한다면, 여성은 '자기 혐오'를 통해 여성을 혐오한다. 이는 여성 혐오의 남녀 비대칭성이다.(우에노 지즈코, 앞의 책, 15면.)

28) "자기증오가 극하여 몸뚱어리까지 추악의 상징"으로 보였기에 "사지를 발기고 살을 점점이 저며도 시원치 않다", "몸에서 무슨 추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거나(91) 남편이 "대담한 독부야.…시베리아 벌판에 거꾸러져서 까치밥"이나 되라며 저주를 해도 듣지 않을 수 없다(92)고 말하는 등 자신을 철저히 "악마", "야수"(94)와 같이 만들고 있다.

29)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유전하여 내려온다는" 피가 있는데, 그녀의 부모는 "간부간부(姦夫 姦婦)"이며, 따라서 자신 역시 "육의 저주받은 인과의 자"이자 "사생아"(103)라 고백한다.

30) 정인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철저한 결함이 있었음은…사실…이에 대한 책임은 거의 그 전부가 당신께 있다 하겠습니다.…당신은…결혼 생활의 실패자로서

또한 이를 “마지막 말이오니, 용서하시고 들어 주시겠지요”(99)와 같은 말로 무마한다. 더하여 자신의 자유연애 사상을 반성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사상과 행위 사이…현격한 거리”(116)가 있었음 ‘만’을 반성한다. 특히 “그러나 나의 이러한 사상이, 그 전부가 틀렸다고는 못하겠지요.”(116)라는 문장은 ‘자신의 사상 전부를 부정하기’를 부정함으로써 도리어 모호함만을 남긴다. 어디까지가 틀리고 맞았는지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반성의 경계도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남편이 준 편지가 “최후의 심판의 판결문”(94)이라면, 그녀의 편지는 유서 아닌 ‘자술서’와 같아진다. 죄를 말함과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한 서술 역시 쉼 없이 교차하기 때문[31]이다.

철저한 내부의 비난으로 외부의 비난을 대비한 후, 최정인이 치중하는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이 시도한 연애담을 풀어내는 일이다. 특히 신여성으로서 연애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부터 신성한 연애의 자유를 어떻게 극단으로 끌고 나갔는지의 과정을 상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감행한 ‘실험의 연애’[32]와 그 보고서를 작성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33] 우선 그녀가 자유로운 연애를 할

그 실패의 요인에 대하여 반성이 없었고…같은 수단과 형식을 취하셨음이 기피할 수 없는 당신의 책임”(95)이라 말한다.

31) 여성혐오가 남성을 “착한 주체로 (재)구성해내기 위해 호명”될 때, 여성이 처한 “조건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불리함”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이선옥, 앞의 글, 102면 참조.)

32) 그녀는 연애하는 자신을 연극 무대 위의 배우로 비유하는데, 남편의 편지를 받은 후, “더 연극을 계속하는 것은 웃음거리도 되려니와 너무 참혹한 일”(87)이라 말하며 본인의 연극을 끝낸다. 이는 그녀가 직접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 여러 연애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33) 장의 순서와 분량으로 보아도 작가가 무엇에 방점을 두고 있는가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 1, 2장의 무조건적인 자기 비난과 7장 남편의 극적인 용서 편지와 각성은 전체 내용의 약 1/3정도인 반면, 본격적인 연애담을 서술하는 3,4,5,6장은 약 2/3에 달한다.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나 죄를 뉘우치는 것보다 여러 연애를 감행하는 실험에 중점을 둔 것이다.

수 있던 것은 유학한 신여성이라는 점에 몰려든 남자들 때문이다. 그녀는 남성을 서슴없이 품평하며 자유를 즐기는데, 자신이 남성에게 "절대"(110)라는 것을 알기에 가능한 행동이다. 이때 자유연애를 만끽하는 여성의 등장은 자발적으로 욕망하는 독립된 '여성주체'를 가시화한다. 최정인은 "열애할 의무"가 있고 "생활의 애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일체의 수단은 가치 않은 것"이 없다(112)며 자신의 의지를 후회 없이 개진해나간 주체이다. 따라서 최정인은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여성", "성적 신체를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사용하는 여성"이 된다.[34]

또한 여성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상황은 그간 지워져있던 것, 연애가 관계라는 지점을 내보인다. 최정인은 욕망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선택의 주체'이다. 최정인에게 매달리는 남자들은 연애가 "상대의 인정"을 갈구함으로써 "스스로의 주체성을 상대에게 이양"해야 하는 관계임을 내보인다.[35] 그녀는 상대 남성이 무엇을 하든 자신의 기준으로 남성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남성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일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P/E/남편과 실행된 연애의 실험에서 '강자/약자'의 역학관계와도 연관된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의지가 약하여 여자에게 곱살스럽게 추종하는 남자"와 "교만하고 냉정한 태도를 가지는 남자"(121)라 말한다. 이 중 P는 전자에

〈암야〉에서는 선택을 주저했기에 〈제야〉에선 오염된 신여성을 등장시켜 연애를 향한 열정을 극한으로 실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연애가 본디 "남녀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표상"(김지영, 앞의 책, 65면.)이었기에 가능한 실험이기도 하다. 즉 작가는 신여성의 연애를 소설의 형식을 빌려 연애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현실과의 교섭을 확인해 본 것이다.(이덕화, 「염상섭의 향기로운 추억의 여인, 나혜석」, 『나혜석연구』 7, 2015. 79면.)

34) 우에노 지즈코, 앞의 책, 154면.

35) 김지영, 앞의 책, 198면.

해당되는 사람으로, "일종의 연민의 정…자식에게 대한 어미의 정"을 느낀다고 하며 이를 "약자에게 대한 강자의 여유 있는 온정의 은혜"(121)라고 정의한다. 반면 E에 대해서는 "처지를 전도"하여 "스스로 약자가 되어서, 긍휼과 애호를 얻으려…약자로서 애를 비는…쾌감"(121)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녀의 언술은 그간 '강자'를 맡았던 남성과 '약자'를 맡았던 여성의 자리를 뒤집는 것이며, 나아가 '강-약'의 우열관계까지 무화시킨다. 그녀는 무조건 약자의 자리로 가지 않으며, 약자에 자리를 갈지라도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연애의 실험이 오염된 연애라 할지라도, 오염된 연애에서 남녀의 '강-약자'의 역할 전환이 언제든 가능한 것이라면, 신성한 연애의 '남성-강자 VS 여성-약자'란 공식 역시 기반의 허약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인-남편의 연애는 앞선 '권력'과 '관계'의 문제 모두 드러내는 실험이다. 남편은 정인에게 "성격상 약점"(98)이 있는 자로 신랄하게 비판받는다. 이는 그가 결혼에 실패했음에도 고민 없이 다음 결혼을 추진하였던 것과 "여성 앞에 군림하려면…약점을 파악하고 있음이 도리어 유리"(100)하기에 정인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약한 자임을 인정하기에 "강자가 되려 하고, 또 될 수 있"다(170)고 말한다. 더하여 그녀를 용서하겠으니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요구한다. 그러나 강자가 되고자 했던 남편의 시도는 실패한다. 정인이 용서를 받는 대신 '자살'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편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기에 정인을 막을 방법이 없다.[36] 시혜자가 친히 용서를 주고자 해도 수혜자인 정인이 그것을 받지 않고 죽는다면, 그런 관계는 성립불가능해지는 것

36) 신성한 연애가 편지를 소통의 형식이 아닌 주체의 자기표현 양식으로 그려왔던 것을 정확히 거울로 반사하는 오염된 연애를 보게 한다. 신성한 연애의 수혜자와 시혜자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듯, 최정인의 편지는 기꺼이 시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남편의 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 이는 연애-관계가 '강-약'의 이분법으로 확연히 갈릴 수 없는 복잡한 상호작용임을 보여준다.

반면 정인은 남편의 용서에서 "스스로 자기를 재단할 만한 예지와 총명과 결심"(94)을 확인하고, 결국 자신의 현실을 각성한 것을 넘어 환멸의 비애를 느끼는 주체로 등극[37]한다. 그녀는 연애의 실험 끝에 낭만의 베일을 벗긴 연애와 마주한다. 그녀는 "현실폭로의 비애를 감"하고, "이상은 환멸"하고, "사상은 중축이 부러져서, 방황혼돈하며, 암담고독에 울면서도 자아각성의 눈만은 더욱더욱 크게" 뜬 자가 된 것이다.[38] 따라서 그녀는 환멸의 비애를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그녀의 눈물은 "단 한 번 귀한 눈물"이자, 짧은 생애 중 가장 의미 있는 눈물(170)로 의미화된다. 또한 눈물은 기쁨이 되는데, 환멸의 비애가 부지중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자극하여 "나를 정케"하기에, "새 생명의 샘"(170)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때 정인이 의지와 의미를 획득한 인물임을 확인케하는 이름의 표지("정인씨여!"(169))가 정인이 죽음을 결심하게 만드는 편지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근대의 표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곧 "신여성의 표지"로 인식된 것, 즉 신여성과 근대성의 문제의식이 밀접히 연관된 것과 관련[39]된다. '최정인-신여성'이 오염된 연애를 통해 신성한 연애의 환상을 걷어냈듯, 이제 '근대성이 지닌 환상(식민지 지식인의 강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함께 걷어졌다. 하지만 최정인은 자신을 철저하게 오염된 연애로 만듦으로써 반대편을 되비춘 것이기에, 자신 역시 다른 근대 인식을 위해서는 사라져야만 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그녀는 환상을 환멸했기에

37) 〈암야〉의 X가 각성은 했지만 환멸의 주체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를 정확히 뒤집어 〈제야〉의 정인이 실천하고 있음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본고 각주 25번 참고)

38) 염상섭, 「개성과 예술」, 앞의 책, 191면.

39)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 역사, 2004. 7~8면.

환상이 걷어지고 난 후의 새로운 근대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투신하는 자'가 된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환멸의 비애가 기쁨으로 변모했듯 '역설'을 담보한다. 죽음은 "타협을 거부하는 치열한 정신의 소유자에게만 허락"되며, 이후에는 "무(無)"가 아닌 "생명의 무한한 성장"[40]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41] 여기에서 더 이상 '암야(闇夜)'가 아닌, 가는 해를 뒤로하고 바로 다가올 새해의 신생을 기다리는 '제야(除夜)'를 확인하게 된다.

4. 교환의 연애와 근대성의 재편(〈해바라기〉)

앞서 신성한 연애가 현실에서 펼쳐질 경우 소외의 연애였음을 각성했고, 그 짝패-오염된 연애의 실험을 통해 연애의 환상을 폭로하는 환멸의 비애까지 나아갔음을 확인했다. 이제 〈해바라기〉에서는 제야를 지나 맞이한 새해처럼, 근대의 환상이 걷어진 현실의 연애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홍수삼과의 연애가 실패한 자리에서 가시화되는 이순택과 최영희의 '교환의 연애'로 등장한다. 이순택과 결혼하는 신여성 최영희는 이전 홍수삼과의 연애에서 신성한 연애에 가까운 사랑을 맛보았지만 결국 실패한다. 그러나 열정만 있는 사랑은 현실이 틈입하기 시작하면 "지구력"이 부족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한부의 연애[42]임이 밝혀진다. 영희는 "나의 예술적 생명

40) 이경민, 「염상섭의 자기혁명과 초기 문학」, 『민족문학사 연구』 60, 2016. 253면.; 염상섭, 「문인회 조직에 관하여」(1923), 『염상섭 문장 전집』 1, 273면.

41) 염상섭은 정인의 죽음이 "자살에 의하여 자기의 정화와 순일과 소생을 얻으려는 해방적 젊은 여성의 심적 경로를 고백"하였다 밝힌다.(염상섭, 「자서-견우화」(1923), 『염상섭 문장 전집』 1, 277면.)

42) 염상섭은 연애를 지상에서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생활문제에 의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다.(염상섭, 「기대와 감상」, 앞의

을 도와주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혹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란 단념"하겠다고 굳세게 다짐(192)하지만, 현실은 곧 "귀찮다 살 수 없다 하면서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198)임을 느끼며 이내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때 근대 식민지의 자본주의 경제는 연애와 예술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며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현실조건이다. 현실의 연애가 물질조건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면, 그때 관찰될 수 있는 것은 최영희와 이순택이 보여주는 교환의 연애뿐이다.[43] 신성한 연애와는 달리 교환의 연애는 철저히 남-여 주체 사이에서 벌어지기에 '관계'를 상정할 수밖에 없으며, '우-열'의 권력은 어떠한 교환 거래를 주고받느냐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연애이다. 따라서 최영희와 이순택은 서로를 관찰하면서도 오인하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기심을 발동하는 지극히 '약한 주체(들)'[44]로 등장한다. 이는 인간이 모순과 분열의 복합적 존재라는 현실을 그 자체로 인정[45]하는 것이다.

책, 413~4면.) 그는 연애를 순간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지속'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다.

43) 염상섭은 연애의 신성성은 "물질적 조건"이 중시되는 이상 없다 말한다. 연애의 "클라이맥스 표준"을 "면박을 차게 되고 밥을 굶어도…변치 않겠다는 맹서"에서 보게 되듯, 현실이 개입되면 사랑은 물질 이상이 되기 힘든 것이다. 물질적 캐피탈리즘은 성도 자본주의화하기에, "현대인의 연애생활은 금전으로 매매"된다고 단언한다.(염상섭, 「기대와 감상」, 앞의 책, 415~6면.)

44) 이때의 약한 주체란 신성한 연애에서 여성혐오를 통해 도덕적이고 강한 주체로 내세워진 것과는 반대편에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들은 특별히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저 "인간으로서 그럴 수도 있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분법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이기심은 "암묵적인 합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것일 수도 있으며, 희생은 도리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조미희,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희생의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58, 2015. 301면. ; 장수익, 「이기심과 교환 관계 그리고 이념」, 『한국언어문학』 64, 2008. 308면.)

45) 염상섭은 단편집 『견우화』의 서문에서 "사람은 야차의 마음을 가진 보살 같고,

영희는 순택과의 결혼을 "주판질 다 해보고"(181), "사랑을 받아주는 보수로 밥을 먹여 달라는 것은 이편의 권리"(193)라 주장한다. 또한 "성욕의 충동"이나, "예술의 힘으로만은 위로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욕망 등이 존재함을 인정(196)한다. 더하여 영희는 "병이다.…피가 괄하고 성벽이 많으며…비상히 신경질로 생긴 사람에게 보통 있는 일이지만 영희도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여자"(180)라고 묘사된다.

하지만 이는 '남-녀'의 우열이 애초에 주어진 것으로 상정된 이전의 여성혐오와는 다른 결이다. 영희의 답사를 "단순한 허영심으로만 그러한 것이라고는 못"(180)한다 말하는 것은 서술자이기에, 단순한 자기변명이 아니다. 또한 그녀는 "이지적 자기 비판력…반성력"을 가졌기에, "자기가 믿는 바의 사상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양심에 부끄러"워 하며 큰 "고통"(180)을 느낀다. 더하여 '피의 메타포'도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아니다. 영희는 그런 '종류'에 속할 뿐이며, 이 또한 영희가 '어떻게 하는 가(정도)-"피가 얼마나 깨겠느냐는 문제"(201)'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서술은 미세한 차이 같지만, 젠더의 문제가 구별에서 '차별'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구별이 젠더를 "변경 불가능한 운명"으로 놓는다면, 차별은 "같은 인간으로서 공약될 수 있는 분모"를 알고 그 부당함을 감지하기에 규정 가능한 개념이다.[46]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남녀에게 주어진 조건도 차이가 나지만[47], 그럼에도 여성

보살의 마음을 가진 야차같이 자기모순과 자기분열에 번뇌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라며 인간의 모순됨과 분열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염상섭, 「자서-견우화」, 앞의 책, 275면.)

46) 우에노 지즈코, 앞의 책, 161~2면.

47) 염상섭은 "실상 각성의 긴급이나 해방의 요구가…남자에게도 시급한 문제"였지만, "부인에 관하여는…여자가 남자에게 구할 바와 구도덕에 대하여 구할(남녀 공동 요구 이외에 여자만 구할 것) 양 방면의 요구가 중첩하므로 남자보다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차이를 지적한다. 물론 염상섭은 여권을 누릴 자격이 있

/남성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이·다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48]이기에 신성한-오염된 연애의 여성혐오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이해타산을 위해 움직이는 이순택의 존재는 '같은 인간으로서 공약될 수 있는 분모'를 발견하게 만든다. 이순택은 "영희의 원을 풀어주는 일이 자기가 살아 있는 첫째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영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다만 영희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있는 것"(246)이라 말한다. 이는 자기만족을 위하여 하는 '인정욕망'에 다름 아니다. 순택 역시 사랑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랑-믿음에 순사하는 것이다.[49] 그리고 영희가 '사랑을 받아주는 것'의 보수를 이야기했던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는 "잔다란 시중"을 들어주는 영희를 보며 "소원이 불시에 성취"가 되었다며 반가워 기뻐하고(202), "가정을 가졌다는 안심과 기쁨"(222)을 즐기며 "영희를 마음대로 사랑하고 흡족하도록 행락하겠다는 화락한 꿈"(232)을 만족스럽게 꾼다. 이러한 지점들은 〈해바라기〉가 남/여 중 하나만을 연애의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를 관찰하는 연애소설이기에 발견 가능한 지점이다.

이때 연애관계가 현실의 물질적 조건(돈, 성욕, 인정욕망 등)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연애에 대한 가치판단

는 여성들에 대해 조건(소양과 실력, 경제적 능력)을 걸어 분류·승인하고 있기에 다른 결의 여성혐오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의 조건을 이해하고 아예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염된 연애의 여성혐오'와는 다른 지점에 있다. (염상섭, 「부인의 각성이 남자보다 긴급한 소이」(1918), 『염상섭 문장 전집』 1, 24면, 26면.)

48) 염상섭은 단편집 『견우화』의 서문에서 "이지와 감정과 의지를 똑같은 분량으로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았더라면,…사람은 모순과 분열에 울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다(염상섭, 「자서-견우화」, 앞의 책, 275면.). 이는 남/여가 아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서술이다.

49) 우에노 지즈코, 앞의 책, 60면.

없이 그저 연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서로 정을 쌓으며, 상대를 불쌍히 여기거나 비웃거나 질투심을 보이는 등의 감정표현[50]을 솔직하게 한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오인하는 장면[51]도 자주 등장한다. '감정/여성'이 "낯설고 불확실하며 위험한 요소"이기에 윤리적으로 포섭해야만 했던[52] 신성한 연애와는 달리, 교환의 연애는 가치판단에서 자유로워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하여 '우-열'의 관계 역시 상황에 따라 뒤바뀌는 유동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희는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기에 순택을 시험하면서도 "그의 비위를 거슬러본 적"은 없고 "어떠한 정도까지는 만족"(199)을 주는 등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오간다. 순택도 영희가 자신을 속였어도 "방그레 웃고 쳐다보는" 눈을 보며 "모든 것을 용서하여주어도 아깝지 않다"(241)고 생각하고 전 애인의 묘비까지 세워주는 등 영희에게 한없는 약자가 된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청구든지 들어주마"라고 하는 순간, 영희는 오히려 미안해하며 "이기는 사람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이다(248)라며 그에게 승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현실에서 연애를 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동요를 드러낸다.

마지막 영희와 순택이 수삼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는 일은 신성한 연애의 상징적 죽음과 함께 현실의 연애를 하는 주체-근대성의 문제를 집약하여 상징화한다. 수삼의 묘비를 세우기 위해 영희가 먼저

---

50) 영희는 순택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194)고 말한다. 이는 자신을 위하여 그간 그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 순택 역시 영희를 보며 "별안간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265)말 하는데, 질투는 감정 표현들 중 '부정적'인 것이기에 남성이 표출 않는 감정이었음에도, 진솔하게 서술되고 있다.

51) 순택은 영희가 신혼여행이 중해서 한 말이 아님에도 신혼여행이 시급히 가고 싶어 한다고 오인(204)하며, 그저 긴장해서 떨리는 어깨를 볼 수 없어 외면(281)하기도 한다. 영희 역시 순택이 자신을 그저 어린아이와도 같이 목숨바쳐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194)

52) 김지영, 앞의 책, 167면.

한 것은 수삼을 향해 '자신'이 썼던 "타는 가슴 끓는 열정을 역력히 그린 기념탑"(272), 즉 편지들을 태우는 일이었다. 이는 상대와의 소통이 아니라 개인의 "각기 다른 내면의 표현"을 고백하기 위한 형식이었던 편지[53]를 신성한 연애와 함께 '재'로 만드는 의식이다. 그녀는 "사랑의 폐허"(272)를 인정하며, 그 재와 사진을 무덤에 봉해 버린다.

그리고 무덤만이 펼쳐진 묘지/폐허에 그들이 세우는 것은 "최영희…공학사 이순택 건지"라는 묘비(269)이다. 사방이 묘지인 현실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폐허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묘비를 세우는 일뿐이며, 그곳에 누군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지 밖에는 남길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죽음을 묻고 다시 시작될 생(영희-순택의 삶)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민지 근대 현실 안의 연애가 발견한 약한 주체(들)의 개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현실을 가린 체 강한 주체가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도리어 "인간성의 위대"를 발견하고, 개개인을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개성을 자각"한다.[54] 이들은 폐허와 같은 현실을 알지만 눈을 돌리진 않고, 근대를 환멸했기에 고개를 돌리고 싶음에도 그대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다른 강함을 획득하는 역설적 개성의 주체이다.

5. 결론 : 현실의 '연애-여성'과 냉소적 근대 인식

염상섭은 연애의 시대에서 '시대의 연애'를 본 자였으며, 신성한 연애의 끝에 '이르게' 도달한 자였다. 그렇기에 염상섭 소설 속 연애

53) 권보드래, 앞의 책, 133면.
54) 염상섭, 「개성과 예술」, 앞의 책, 193면.

는 다른 작가들의 연애와는 그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암야〉는 신성한 연애가 현실에서 실천될 경우 '소외의 연애' 밖에는 될 수 없음과 그 속에서 억압받는 인간을 보게 한다. X(남성)는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N(여성)은 여성혐오를 통해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한다. 이는 무덤과도 같은 식민지 시대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면서 근대성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남성주체에게 연애는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작가는 〈제야〉에서 신여성이 행하는 오염된 연애를 끝 간데까지 밀어붙여보는 '실험의 연애'를 감행한다. 이 실험은 먼저 여성혐오를 도구화하여 방패로 삼은 후 이루어진다. 전면화 된 오염된 연애는 그간 가려져 있는 '여성 주체'를 가시화하고, 연애는 일방적 감정이 아닌 '관계'였음을 드러낸다. 더하여 식민지 근대에서 강한 남성 주체를 가능하게 했던 '우-열'의 관계까지 무화시킴으로써 근대성의 환상을 걷고, 그것을 환멸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해바라기〉는 연애-근대성이 준 환상이 사라진 현실에 남은 '교환의 연애'를 보여준다. 영희와 순택이 보여주는 교환의 연애는 물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지만 도덕적 가치판단이나 이상적 기준을 강요받지 않기에 자유롭다. 여기서 식민지 남성-여성 모두 허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약한 주체임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는 식민지 지식인의 개성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이들은 시대의 불구성을 알고 약함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알기에 현실을 제대로 응시하는 자이자 제국의 논리를 따라가는 대신 다른 길을 찾아보려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가 염상섭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작가는 '연애-근대성'에 대한 완전한 긍정을 부정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부정도 부정한다. 그에게 있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논리를 답습하여 '기

호화된 여성혐오'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기만적인 주체 구성방식이었지, 연애 혹은 근대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상섭은 난세의 상황을 관찰하고, "작자의 개성(냉소)"을 자신의 "예술적 세계"에 "투영"시킨다.[55] 염상섭은 관찰자이자 중계자로서 모든 것을 냉소하는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계몽-윤리-이상'에서 벗어난 약한 자리를 고수하되,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정신생활"[56]은 포기하지 않는 개성의 주체가 된다.

이때 냉소하는 주체는 타자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염상섭이 보이는 다른 여성혐오적 시선을 확인하게 된다. 환상이 걷어진 현실의 여성 앞에는 여전히 불평등한 현실(봉건 사회, 획득하기 힘든 경제적 능력 등)이 놓여있었지만, 작가는 개개인의 여성들이 이를 온전히 감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이해의 시선보다 비판의 시선을 보냈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비판적 시선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향하지만, 여성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 하지만 이렇게 냉소하는 주체는 타자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유·비판하는 것을 통해 자아의 자리를 확보한다. 이는 신화화된 '강한 진리'의 이념이 오히려 현실적인 약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기에[57],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나름의 적극성을 찾아가는 역설적인 주체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작가 염상섭만이 확보한 개성의 의미와 이후 그의 서사 세계를 균형감 있게 지탱해준 토대를 발견하게 된다.

55) 염상섭, 「개성과 예술」, 앞의 책, 198면.
56) "개성의 표현을 의미하는바 생명이란 무엇을 의미함인가. 나는 이것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정신생활'이라 하려 한다."(위의 책, 195면.)
57) 나병철, 앞의 책, 404면.

■ 참고문헌 ■

1. 논문

강헌국, 「개념의 서사화」, 『국어국문학』 143, 2006. 407~430면.

공종구, 「염상섭 초기소설의 여성의식」, 『한국언어문학』 74, 2010. 391~415면.

김경수, 「염상섭의 초기 소설과 개성론과 연애론」, 『어문학』 77, 2005. 223~243면.

김도경, 「염상섭 초기 단편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9, 2009. 239~262면.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18, 2001. 299~327면.

김미지,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영민, 「염상섭 초기 문학의 재인식」, 『사이』 16, 2014. 155~188면.

김주현, 「자유연애의 이상과 파국」, 『우리어학연구』 26, 2009. 189~217면.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 27, 2005. 51~81면.

류진희, 「'무기 없는 민족'의 여성이라는 거울」, 『문학과학』, 83, 2015. 48~61면.

윤영옥, 「염상섭 소설에서의 자유연애와 자본으로서의 젠더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58, 2014. 255~281면.

이경민, 「염상섭의 자기혁명과 초기 문학」, 『민족문학사 연구』 60, 2016. 219~257면.

이덕화, 「염상섭의 향기로운 추억의 여인, 나혜석」, 『나혜석연구』 7, 2015. 70~94면.

이선옥, 「과학주의 시대-여성혐오라는 정동」, 『여성문학연구』 36, 2015. 91~116면.

이정숙, 「'개발주의서사'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 『여성문학연구』 36, 2015. 63~90면.

이태숙, 「염상섭의 20년대 연애소설과 유학의 경험」, 『한중인문학회』 29, 2010. 231~252면.

임정연, 『1920년대 연애담론』,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5.

장수익, 「이기심과 교환 관계 그리고 이념」, 『한국언어문학』 64, 2008. 303~331면.

조미희,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희생의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58, 2015. 299~319면.

지용신, 「염상섭 초기소설 속 연애 담론 고찰」, 『한남어문학』 37. 2013. 225~248면.

2. 단행본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4.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 역사, 2004.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소명출판, 2008.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4.

문광훈, 『한국 현대소설과 근대적 자아의식』, 아카넷, 2010.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염상섭, 『염상섭 문장 전집』 1, 한기형·이혜령 엮, 소명출판, 2013.

오윤호, 「염상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모방적 이성애'」, 『한국소설 근대성의 시학』, 예림기획, 2003.

우에노 지즈코,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7.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최혜실, 『한국근대문학사』,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한기형, 이혜령 엮,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4.

<Abstract>

Love-Misogyny as a method & Modern Recognition －Centered on Early Works by Yeom Sang-Seop－

Lee, Ji-Hye

This paper identifies a perspective of the writer Yeom Sang-Seop's own, seeing the ‘love of the age’ in the period of the love and proceeding toward another different modern recognition in his early modern love stories. Differentiation of Yeom Sang-Seop from other writers in those days originates from ‘knowing’ that ‘sacred love’ standardized in 1920s is eventually impossible in the reality and ‘knowing’ that the point where contradictions of the sacred love manifest themselves most clearly is contaminated love-misogyny, an inevitable stopover though called its contrary term. The writer comes to ensure the identity of the modern subject different from that of the sacred love due to correct understanding on the periodic reality.

In particular, <A Dark Night>(Chapter 2) witnesses that the sacred love is forced to be ‘love of alienation’ in the reality. X(male) is alienated from his feeling and N(female) passes between ‘sympathy-contempt’ though she does not appear, in other words, finding out that it is not possible to be excluded through misogyny. However, though recognizing that the colonial era is turbulent with

awakening of modernity, X does not give up love at all.

Hence, in <A Watch Night>(Chapter 3), the writer carries out the 'love of experiment' regarded as the opposite of the sacred love, pushing ahead with the contaminated love done by the new woman. This experiment is conducted after instrumentalizing the misogyny and using it as a shield. Contaminated love that comes to the surface visualizes hidden 'female subject' and reveals that love is the 'relation' rather than one-sided feeling. In addition, it paralyzes even the relation of the 'superior-inferior' that caused the strong male subject in the colonial age so eliminates the illusion of modernity and disillusions it. It offers an opportunity for finding out an individuality of another modernity.

<Sunflower>(Chapter 4) shows that there remains the 'love of exchange' in the reality where illusion of love disappeared. The love of exchange shown by Young-Hui and Sun-Taek is based on material conditions denied so far but freed from moral valuation and ideal standard. Such love does not have the strong male subject formed by illusion of modernity-misogyny. Instead,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at both males/females in the colonial age are beings weak and anxious. However, it is the moment that discovers the individuality of colonial intellects. They are those who recognize the disability of the period and their own weakness but stare at the reality rather than turning away their eyes and search for another way rather than following the logic of the powerful.

Such recognition on the modernity is connected to the identity of Yeom Sang-Seop. He comes to be the subject of the individuality who does not give up the spiritual life that may develop infinitely by sticking to a cynical attitude on everything as an observer and mediator. He ensures a place for ego through observing and thinking

of others continually. Here, we may find out the meaning of the individuality that only the writer Yeom Sang-Seop has and a balanced foundation that supports his narrative world hereafter.

Key words: Yeom Sang-Seop, Misogyny, Love, Modernity, Disillusion, Individuality, <A Watch Night>, <A Dark Night>, <Sunflower>

투 고 일 : 2017년 5월 25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25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